



지난해 9313개 ... 내수 정체에 수출 부진 겹쳐 8년 만에 최저 수준

타이어 수입은 사상 최대

타이어 3사 영업이익 감소

지난해 국산 타이어 판매가 내수 정체에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타이어 수입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 국내에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타이어의 내수와 수출을 합한 전체 판매량은 총 9313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3.9% 감소한 수치로, 지난 2009년(8897만개)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국산 타이어 판매는 2013년 한때 9900만개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시장은 2010년부터 작년(2490만개)까지 2500만개 내외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타이어 업계는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좀처럼 기세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산 타이어 수출량은 전년보다 3.4% 적은 6823만개로, 2010년 이후 처음 7000만개 아래로 떨어졌다. 수출 역시 2012년 최대치(7367만개)를 경신한 뒤로 계속 감소세다.

최근 수년간 국내 타이어 산업의 성장이 둔화한 것은 글로벌 시장이 공급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품질과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업체들이 약한 기술력 대신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내 소비심리 둔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수출 관련 악재로 전방산업인 완성차의 판매가 부진했던 영향도 더해졌다.

다만 같은 기간 수출액은 33억9000만달러에서 34억5000만달러로 소폭(1.8%) 늘었다. 우리 업계의 고성능 타이어 판매가 늘어난다는 뜻으로 그나마 고무적이다.

이처럼 국산 타이어가 추축하는 가운데 타이어 수입은 꾸준히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타이어 수입량은 1175만개로, 처음으로 1000만개를 넘겼다. 수입액 역시 7억3669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타이어 수입에는 국내 브랜드가 해외 공장에서 만든 뒤 재수입하는 물량도 일부 포함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다. 결국 수입 브랜드의 국내 유입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시장이 커지는

데다 중국, 동남아 업체의 저가 제품이 들어오면서 수입 타이어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금은 내수 점유율이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저가 물량 공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국산 타이어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이미 국내 타이어 업계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가 위축된 가운데 원재료 인 고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2017년 한국타이어의 실적 컨센서스(전망치 평균)는 매출액 6조8520억원, 영업이익 8576억원이다. 2016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3.5%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22.3% 감소한 것이다.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매출액 2조9287억원, 영업손실 19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은 2016년 대비 0.6%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하는 것이다.

지난 19일 잠정실적을 공시한 넥센타이어의 작년 매출액은 1조9646억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1853억원으로 25.3% 감소했다. /연합뉴스



“설 연휴 현대차 빌려 타고 고향가세요”

6박 7일 렌탈이벤트

8일까지 홈페이지 응모

설 연휴, 귀향길에 현대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현대차는 설 연휴기간 현대차를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6박 7일 렌탈이벤트(사진)'를 실시한다. 만 21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 및 제네시스 홈페이지(www.genesis.com) 내 이벤트 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일까지 응모하면 되고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차량은 ▲아이오닉 ▲코나 ▲i30 ▲쏘나타 ▲투싼 ▲맥스크루즈 등 200대와 ▲제네시스 G70 130대다. 선정된 고객 330명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6박 7일간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쌍용자동차 '2018 티볼리 브랜드' 출시

스마트 미러링 적용

쌍용자동차는 스마트 미러링(모바일 기기와 연동)을 신규 적용해 멀티미디어 활용성을 높인 '2018 티볼리 브랜드'(사진)를 출시했다.

2018 티볼리 브랜드(티볼리 아머, 티볼리 에어)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미러링 서비스 기능이 추가됐다.

또 운행 중 지역 이동에 따라 주파수가 변경돼도 동일한 방송을 끊김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라디오 주파수 자동 변경 기능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2018 티볼리 브랜드의 판매가격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며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는 57만원 상당의 옵션으로 운영된다.

쌍용차는 또 렉스턴 브랜드(G4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투리스모의 외관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의 '실키 화이트'를 추가했다.

쌍용차는 2018 티볼리 브랜드 출시와 3년 연속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1위 달성을 기념해 시승 후 구매하는 고객에게 골드바 등 경품을 증정한다. /연합뉴스



신형 벨로스터 국내 판매 12일 시작

7년 만에 풀체인지

신형 벨로스터(사진)의 국내 판매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현대자동차는 12일에 예정된 신형 벨로스터의 주요 사양과 가격대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7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된 신형 벨로스터는 가솔린 1.4터보, 1.6터보 등 2가지 라인업(4개 트림)으로 출시됐다.

판매 가격은 트림별로 가솔린 1.4터보의 경우 ▲모든 2135만~2155만원 ▲모든 코어 2339만~2359만원, 가솔린 1.6터보

는 ▲스포츠 2200만~2220만원 ▲스포츠 코어 2430만~2450만원 등이다.

신형 벨로스터 외관은 기존 1세대 특징인 센터 머플러와 운전석 쪽 문 하나, 조수석 쪽 문 2개가 설치되는 비대칭 디자인을 적용했다.

현대차는 신형 벨로스터 전 모델에 터보 엔진과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장착해 주행 성능을 끌어올렸다. 또 실시간 운전상황에 따라 적합한 주행 모드(스포츠, 노멀, 에코)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스마트 슈프트도 현대차 준중형 최초로 트림에 탑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콕' 사고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일반형 주차장 폭 기준 최소 2.3m→2.5m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차 문을 짚는 이른바 '문콕' 사고 방지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국도교통부는 좁은 주차구역 폭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단 위규칙 최소 크기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도부는 문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이는 중·대형 차량이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주민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주차장 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통 청구 기준 문콕 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적용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3월 전에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차장 확대가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주차구역 크기가 작아 공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주차 단 위규칙 크기 확대를 통해 문콕 등 주차 사고 예방과 주민 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2>개업·성업 안내</h2> <p>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h3>초대 화랑</h3>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p>	<h3>서울표구점</h3> <p>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p> <p>☎010-3633-2790</p>	<h3>내담대구탕·찜</h3> <p>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p> <p>대표 한혜숙 ☎062)471-5050</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062)224-7687, 010-2611-7687</p>
<h3>금강버티컬</h3>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062)514-6118, 010-5627-6119</p>	<h3>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h3> <p>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p> <p>☎062)233-9992</p>	<h3>바른글씨교정원</h3> <p>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담전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강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p> <p>☎062)525-9933, 010-8703-3378</p>	<h3>하안나라 운동화세탁</h3> <p>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월래부터 수거배달"</p> <p>☎062)269-4450, 010-4607-5773</p>	<h3>금복식당</h3> <p>동구 공동 55-2(카톨릭센터 뒤) 찜탕, 계절 생선매운탕 전문</p> <p>대표 김용범 ☎062)236-3177</p>
<h3>교원빨간펜남광주센터</h3> <p>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학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p> <p>☎010-3613-3145</p>	<h3>청학철학원</h3>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h3>으뜸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일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h3>가득</h3> <p>동구 예술의길 31-16 동부고시학원 3층 뷔페백반 전문</p> <p>대표 전옥희 ☎062)222-0589</p>
<h3>양지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p> <p>대표 전병양 ☎062)263-2223</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h3>토산철학원</h3> <p>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h3>국수나무용봉점</h3> <p>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34-4 (중양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